

나이듦과 지혜: 성공적 노화의 통합적 개념화*

이 수 림[†]

조 성 호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주요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노인문제와 나이듦에 대한 이해의 틀을 마련하고자 성공적 노화의 통합적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나이듦의 의미를 규명하고, 나이듦과 관련된 부정적 변화와 나이듦에 따른 성장과 발달 등 긍정적 변화를 구분하여 개관하였다. 특히, 긍정적 변화와 관련하여 지혜가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성공적 노화 이론과 주요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였고, 기존의 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혜를 포함하는 성공적 노화의 통합적 개념화를 제시하였다. 성공적 노화의 통합적 개념화의 주요내용 및 특징을 설명하고 성공적 노화의 통합적 개념화가 갖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공적 노화, 지혜, 나이듦, 노인상담, 노인문제

* 본 연구는 2006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 : 이수림,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420-74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산43-1

E-mail : sulim2@kyci.or.kr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06년 주민등록 전 산자료 통계’에 따르면 2006년 8월말 현재 전국 232개 시·군·구 가운데 고령화 비율이 20%를 넘는 곳은 22%인 51곳이었다(행정자치부, 2006,10,11). 또한, 통계청(2006)에 따르면, 우리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중 14.3%를 차지하여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사회는 고령화가 되고 있어 노인문제에 대한 이해와 대처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Hill, Thorn, 및 Packard (2000)는 노화 문제가 상담심리학을 비롯한 심리학 전반의 중요한 관심 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노화로 인한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들에 대한 심리학적 서비스 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노인상담 등 심리학적 서비스 내용, 노인관련 시설, 전문인력 등 인프라 구축이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이장호, 김영경, 2006).

노인문제는 나이듦과 관련된 발달적 변화, 사회적 변화와 관련된다. 이장호와 김영경(2006)은 노인문제와 관련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환경적·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환경적·외부적 요인으로는 은퇴, 경제적 수입의 감소, 배우자 사별, 친구 또는 친척의 죽음, 독거나 자녀와 별거와 같은 가족관계의 변화, 배우자 간병 등이 있고, 내부적 요인으로는 신체적 건강의 약화, 만성적 질병,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쇠퇴, 죽음에 대한 인식 등이 있다. 또한, 김태현(1994)은 노인문제를 병고, 빈고, 고독고, 무위고의 사중고와 연결지어 설명하였다.

은퇴와 같은 사회적 역할 상실과 가깝던 사

람들과의 관계 단절은 노인의 사회적 활동을 축소시키고 심리적 위축이나 고독감을 느끼게 하고 자아정체감 및 자존감을 감소시킨다(이선미, 2005). 노인들이 가장 스트레스로 지각하는 문제들은 상실감, 건강문제, 주거문제, 경제문제, 가족관계 등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신숙, 이경주, 2002). 노인들의 경제적 상실, 건강 상실, 관계의 상실은 노인의 자아통합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김후경, 이순철, 오주석, 2007), 관계 상실과 건강 상실은 특히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윤훈, 이순철, 오주석, 2007). 상실감 또는 우울 등 노인들의 심리적 문제는 독거노인이나 가족의 사회적 지지가 낮을 경우에는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경현, 김영숙, 2003; 정태연, 조은영, 2005). 노인들의 우울증도 심각한 노인문제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노인의 약 15%가 우울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신체적 건강문제, 자녀와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이 노인들의 우울감을 증폭시키는 주요 요인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김형수, 2000). 이러한 노인 우울문제는 노인자살로 이어지고 있어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는 노인문제 등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많이 이루어졌으나, 나이듦의 전체적인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이듦의 다른 측면들에도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나이듦에 대한 전체적 조망의 필요성과 발맞추어 노인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과연 노년기는 절망적인 시기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행복한 노후생활을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라는 개념은 바로 이러한 배경

에서 제안되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무엇이 성공적 노화인지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노화가 주는 이중적 의미, 즉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통합하려는 시도는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나이듦에 대한 전체적 이해를 바탕으로 성공적 노화에 대한 통합적 이해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나이듦의 의미를 정의하고, 나이듦에 따른 감퇴, 상실 등 부정적 측면의 접근들과 나이듦으로써 성장, 발달하는 긍정적 측면의 접근을 개관하였다. 특히, 긍정적 측면에서 나이듦과 지혜에 대한 개관을 통해 지혜가 성공적 노화의 핵심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동안 다양하게 제시되었던 성공적 노화의 개념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 노화에 대한 통합적 개념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나이듦(aging)의 의미

‘aging’은 사전적인 의미로 ‘나이를 먹는 것’이고 ‘노화’로 번역된다(김미혜, 신경림, 2005). 국내 문헌에서 노화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호선(2006)은 “노화란 개인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신체적·사회적·심리적 변화와 기능의 저하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생물학적 측면에서 ‘노화’란 신체·생리적인 기능이 절정의 순간을 거친 후 한참 그 효율성을 유지하다가 서서히 감퇴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김애순, 2004). 즉, ‘노화’는 모든 유기체에 게 생기는 시간경과에 따른 신체적 및 심리적 감퇴로 볼 수 있다(윤진, 1985).

Vaillant와 Mukamal(2001)은 ‘aging’의 정의를

감퇴(decline), 변화(change), 발달(development) 등의 세 차원으로 설명하였다. 그들은 ‘aging’이 감퇴를 시사하기도 하지만, 다소 중립적 의미의 변화도 나타내며, 발달과 성숙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Carstensen(1992)은 시간경과에 따라 와인이 쓴맛에서 점차 부드러운 맛으로 성숙되어 가듯이, 노년에 이르러 사람들은 더 인내할 수 있고, 더 참을성 있고, 타인의 정서를 더 잘 수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Baltes(1987)는 경험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년기는 문제투성이인 부정적인 인생단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Rowe와 Kahn(1998) 역시 장수(長壽)가 단지 불능(disability)의 시기는 아니고 발달과 성장의 개념까지 내포한다는 긍정적 관점을 지지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노령화에 따라 인지적 기능이나 감각적 기능 등과 같이 쇠퇴의 국면에 있는 상실분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삶의 지혜’와 같이 점차 늘어나는 성장분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 것이다. 이런 점에 주목하여 노령화가 아닌 가령화(加齡化)의 시각에서 인생 후반기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안지연, 김애순, 한광희, 1998).

나이듦에 따른 손실

나이듦에 따른 발달적 감퇴로 인해 전체적으로 나이듦에 따라 이득보다 손실이 증가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Baltes, 1987; Freund & Resigner, 2003; Heckhausen, Dixon, & Baltes, 1989). 나이듦에 따른 손실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우선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신체적 변화이다. 신체적 변화에는 외모의 변화, 신체기능의 약화, 감각기능 및 반응속도 저하,

신체의 활력시스템 저하 등이 있다(Freund & Riediger, 2003). 만성적 질병과 장애 유병률은 나이듦에 따라 증가한다. 혈압, 체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고, 이러한 위험요인들은 심장질환의 원인이 된다. 또한 신진대사의 기능저하, 골다공증 등도 노년기에 나타나는 만성적 질병이다(Rowe & Kahn, 1987).

둘째, 인지기능의 감퇴로써 기억력과 지능의 감퇴를 들 수 있다. 기억이나 지능과 같은 인지능력은 나이듦에 따라 심각하게 감소한다(박민, 진영선, 2002; 조성원, 1996; Heckhausen, Dixon, & Baltes, 1989; Schaie, 1996). 또한 치매와 같은 기질성 장애의 위험성은 연령에 따라 증가한다. Baltes(1987)는 지적능력을 유동지능(mechanic)과 결정지능(pragmatics)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유동지능은 정보과정과 문제해결의 기본 구조를 일컫는다. 이는 문화나 교육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 비교적 선천적인 지능이며, 유아기 때 빠른 성장을 하고, 성인기에 감소하고, 노년기에 급속하게 감소한다. Lindenberger와 Baltes(1997)는 70세-103세 노인 516명을 대상으로 지적능력과 연령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유동지능 영역은 연령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지각속도, 추론, 기억, 지식, 유창성, 전반적 지능 등도 감소하였으며, 특히 감각기관기능의 감소변인이 일반적 지능변인의 59%를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물학적 요인이 지능감퇴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배우자나 친구의 죽음, 은퇴, 이사, 질병 등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감소이다. 노인이 되면서 사회적 관계는 감소한다(Carstensen, Fung, & Charles, 2003). Lang과 Carstensen(1994)은 70세-104세 노인 156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망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전체적인 사회적 망

의 크기는 연령증가에 따라 감소하였고, 고령 노인(85세 이상)의 사회적 망은 다른 노인들(85세 미만)의 사회적 망 크기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노화이론들은 노년기의 사회적 관계의 감소는 노년기의 특수한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사회적 관계의 감소는 역할상실, 사회적 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장벽, 노인의 연합에 따른 상대적 관계가능성 감소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Lang & Carstensen, 1994). 여성보다 특히 남성에게 있어서 은퇴는 종종 사회적 관계의 붕괴 위기와 관련된다. 은퇴는 직업역할의 상실, 수입의 감소, 사회적 유대관계의 약화 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위기적 사건으로 고려되어져왔다(김명자, 2003; 김명자, 박미금, 송말희, 2005). 또한 배우자의 사망은 인생에서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힘든 상실 중 하나로 작용하며, 이는 일상생활적응, 경제력, 사회적 위치, 개인적 자아정체감 등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킨다(Freund & Riedinger, 2003).

노인들에 대한 차별적 사회분위기는 노인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들이 누리던 권위적 지위의 대부분이 상실되게 되며, 이로 인해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고독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노인이 많은 실정이다(김문영, 정현희 2004). 이상과 같은 나이듦에 따른 손실요인들은 노년기를 주관적 안녕감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시기로 만들게 한다(Brandstadter & Greve, 1994).

나이듦에 따른 성장과 발달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나이듦에 따른 부정적

변화를 강조하고 긍정적 변화는 간과하는 편이다. 그러나 나이듦의 긍정성을 간과하는 것은 성공적 노화를 부정적 측면에 대비하는 것으로만 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듦에 따른 이득이 감퇴에 비해 많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성공적 노화를 준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Williamson(2002)은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 즉, 노인들은 아프고, 인지적 결함이 있고, 우울하다는 것에 대한 반대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노년기는 단순히 부정적인 시기인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나이듦에 다른 성장과 발달을 영역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적 측면에서 나이듦에 따라 감소하지 않고 성인후기까지 유지되거나 오히려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들이 있다. 결정지능은 교육, 경험의 폭, 의사소통 이해력, 판단력 등을 반영하는 지적능력인데, 이는 연령에 따라 감퇴하기는 커녕 성인후기까지 긍정적 발달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Baltes, 1987, 1993). 또한 지능에는 가소성(plasticity)이 있어 지능이 감퇴하더라도 잠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존재한다(Baltes, 1987). 이는 연습과 훈련 등 적당한 조건하에서 노인들도 새로운 것을 잘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Schaie, 1996). Blanchard-Fields(1986)의 연구에서는 정서 특징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회인지적 추론이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나이가 들고 자아수준이 높을수록 미성숙한 대처와 방어전략을 덜 사용하고(Labouvie-Vief, Hakim-Lason, & Hobart, 1987), 자아표상 역시 더 분화되고 복잡해진다(Labouvie-Vief, Chiodo, Goguen, Diehl, & Orwoll, 1995).

둘째, 연령증가에 따라 부정적 정서는 감소하는 반면, 긍정적 정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

거나(Carstensen, Pasypathi, Mayr, & Nesselrode, 2000; Charles, Reynolds, & Gatz, 2001), 증가하여 삶의 만족도가 더 증진되기도 한다(Labouvie-Vief & Medler, 2002; Mroczek & Kolarz, 1998). Lawton, Kleban, Fajagpal, 및 Dean(1992)은 이를 ‘정서최적화’ 개념으로 설명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노인들은 부정적 정서경험을 되도록 피하고 충분한 정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주관적 안녕감을 유지하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유경, 민경환, 2005a). 사회정서적 선택이론(Carstensen, Fung, & Charles, 2003; Carstensen, Isaacowitz, & Charles, 1999)은 정서변화를 인간의 동기차원에서 설명하는데, 생의 한계에 대한 자각이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목표에 주의를 두도록 동기의 이동을 이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서적 목표에 주의가 커지면서 정서적 경험을 더 중시하고 정서조절을 더 잘하게 된다. 노인들은 정서적 표상과 정서조절을 더 잘하고(Labouvie-Vief, 2003), 정서가 개입되어 있는 대인관계 상황에 대한 추론 과제에서 젊은이들보다 더 나은 수행을 나타냈다(Blanchard-field, 1986). 또한, 노년기에는 정서복잡성이 향상된다(Baltes & Stadinger, 2000; Carstensen et al., 2000; Diehl, Coley, & Labouvie-Vief, 1996). 유경과 민경환(2005b)에 따르면, 정서복잡성은 정서의 변별과 통합을 일컫는데, 상황이나 자극에서 주어진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를 다양하게 변별할 수 있고 하나의 대상에 대해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수준이 정서복잡성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연구자들은 정서복잡성 과제를 청년, 중년, 노년 집단에 실시하였는데, 노년집단의 정서복잡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복잡성이 장노년기 평

정감 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서복합성 향상은 정서최적화를 이루고 주관적 안녕감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년기의 긍정적 특성임이 밝혀졌다.

셋째, 성격특질은 성인기의 특정 연령에 고정되지 않고 노년기에서조차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Caspi & Roberts, 2001). Jung(1961)은 나이듦에 따라 내향성이 증가하고, 남성성과 여성성이 변화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격관념의 변화는 사람들의 억눌린 부분을 표출하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심리적 성숙의 지표라고 하였다. Jung의 이론은 구체적이지 않지만, 성인발달의 긍정적 측면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Helson, Jones, 및 Kwan(2002)은 2개의 종단연구를 통해 40년간의 성인기 성격변화를 추적, 조사하였다. Mills 대학연구와 인간발달연구소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40년간 4-5회에 걸쳐 동일 검사를 반복 실시한 결과, 책임감, 사회화, 자기통제, 친화성 등 규범지향(norm adherence) 척도에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신중성, 참을성, 독립적 성취와 지배성이 증가하였고, 여성성은 27세까지 증가한 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Helson, Kwan, John, & Johnes, 2002; Robert, Helson, & Klohnen, 2002). Labouvie-Vief, Dichl, Tarnowski, 및 Shen(2000)은 20세-87세 연령의 미국인 285명, 중국인 450명의 성인에게 성격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연령증가에 따라 외향성과 융통성은 감소하지만, 통제 및 규범지향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roczek과 Spiro III(2003)의 연구에서는 외향성과 신경성의 변화를 1600명 남성을 대상으로 12년간 조사하였는데, 전체적인 외향성 경로는 선형적 감소를 보였고, 신경성은 이차적 감소곡선을 나타

냈다. 전체적으로, 통제 또는 규범지향성, 신중성 등은 연령에 따라 증가를 나타냈으며, 신경성이나 외향성은 감소를 나타냈다.

나이듦과 지혜

지혜는 자아통합과 성숙, 판단과 대인관계 기술, 인생에 대한 탁월한 이해와 같은 긍정적 자질을 포함하기 때문에 성공적 인간발달의 핵심으로 여겨진다(Ardelt, 2000; Clayton, 1982; Erikson, 1963; Erikson, Erikson, & Kivnick, 1986). 지혜는 삶의 경험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발달에 시간이 걸리고, 따라서 특히 노년기와 관련된다는 주장들이 있다(Ardelt, 2000; Baltes, Staudinger, & Lindenberger, 1999; Baltes & Smith, 1990; Kekes, 1983). Meacham (1983)은 지혜의 핵심은 연령과 관련이 없지만, “지혜의 질” 또는 “지혜의 깊이”는 연령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Perlmutter, Adams, Nyquist와 Kaplan은 지혜로운 사람의 성격과 관련된 일반적 요인들을 조사했는데, 지혜는 연령과 78%, 성별과 16%, 교육과 68% 관련된다는 결과를 얻었다(Perlmutter, Adams, Nyquist, Kaplan, 1988, Orwoll & Perlmutter, 1990 재인용). 이 결과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지혜는 나이든 사람과 교육받은 사람에게 더 많다고 믿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Wink와 Helson(1997)은 실용적 지혜를 27세에서 52세까지 평가하는 종단연구를 하였는데, 실용적 지혜는 25년 동안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혜가 연령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많은 제안이 있었지만, 지혜 개념이 학자마다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지혜와 나이듦과의 관련성도 이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고 있다. 지혜 개

념에 대한 이론적 접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혜를 삶에 대한 전문적 지식(Baltes & Smith, 1990; Baltes & Staudinger, 2000), 암묵적 지식(Sternberg, 1990, 1998), 통합적 사고(Labouvie-Vief, 1990)로 개념화하는 인지적 접근이 있다. 둘째, 성격학적 접근으로서 여기에서는 지혜를 자아발달과 자아초월(Orwoll & Perlmutter, 1990), 실용적 지혜와 초월적 지혜(Wink & Helson, 1997), 성격특징(특출한 이해력, 판단과 의사소통 기술, 일반적 유능성, 대인관계적 기술, 사회적 겸손)(Holliday & Chandler, 1986), 인지, 반성, 정서적 특징의 조합(Clayton & Birren, 1980)으로 개념화한다. 셋째, 초월적 접근으로 Mckee와 Barber(1999)는 지혜는 망상을 극복함으로부터 나오는 지식이라고 제안했고, 이것은 표면 뒤에 있는 현실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각 이론마다 지혜의 개념은 다르지만, 지혜의 구성개념은 다차원적(multi-dimensional)이며 지혜를 구성하는 여러 하위 개념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가 이루어졌다(Baltes & Staudinger, 2000; Taranto, 1989; Webster, 2003). 또한, 서양에서는 인지능력, 추론 등 지혜의 분석적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동양의 지혜 개념은 다양한 측면의 통합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Takahashi, 2000).

지혜를 인지적 요인으로 개념화하는 베를린 연구(Staudinger, 1999; Staudinger & Baltes, 1996)에서는 지혜관련 수행과 연령간에 의미있는 상관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횡단연구에서 나타나는 동시대효과와 연령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인지능력 감소를 원인으로 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노인의 인지능력의 감소를 감안하여 젊은이만큼 인지수행 능력을 보이는 노인들을 선발하여 다시 연구하였

는데, 노인들은 젊은이들보다 더 높은 지혜관련 수행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Staudinger, Maciel, Smith, & Baltes, 1998). Staudinger와 Baltes(1996)는 80세 이상의 노인이 지혜관련 수행에서 젊은이와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연령에 따라 지혜관련 수행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노인들은 대화를 한 후 지혜 평가를 받도록 한 실험조건에서 젊은이들보다 더 나은 수행을 보였는데, 이는 노인들이 적절한 수행조건에서는 젊은이들보다 더 쉽게 지혜를 발휘한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Staudinger, 1999).

나이듦과 지혜의 관련성에 대한 여러 연구의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연대기적 연령이 지혜와 관계없게 나타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나이만 먹는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지혜 연구자들은(예: Ardel, 2004; Baltes & Staudinger, 2000; Staudinger, 1999) 나이듦이 지혜획득에 필요조건이 될 순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한다. 또한, 지혜의 획득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경험에 대한 개방성, 반성, 자기검토, 자기자각 등의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 심리적 귀결물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Ardelt, 2000; Kekes, 1983; Kramer, 1990; Levitt, 1999).

Ardelt(2004)는 Clayton과 Birren(1980)의 개념을 기초로 지혜개념을 인지, 반성, 정서의 통합으로 개념화하였다. Ardel(2004)에 따르면, 인지적 요인은 개인내적 혹은 대인관계문제에 대하여 진실을 알고 삶의 깊은 이해를 얻으려는 바람을 일컫는다. 반성적 요인은 자기검토, 자기자각, 자기통찰, 그리고 현상과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검토하는 능력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점차 주관적 편향성의 한계를 극복한다. 정서적 요인은 타인에 대한 공감과 연민 등을 포함한다.

Ardelt(2004)에 따르면, 끊임없는 자기검토와 자기자각은 문제와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고, 모든 가능한 관점을 고려하여 부정적 정서에 압도되지 않도록 한다. 이 과정은 자아중심성을 약화시키게 되고, 자기, 타인, 세계, 자연에 대한 더 큰 직관과 공감적 이해를 이끈다. 이는 Erikson(1982)의 성인기 발달과업인 통합감 대 절망감을 성공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얻어지는 자아통합과 통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지혜의 길을 추구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는 왜 지혜가 연령에 따라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노인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상대적으로 드문지를 설명한다. 젊은 사람과 비교하면, 노인들은 더 힘든 경험을 했고, 반성, 자기검토, 자기자각을 실행하고, 자신들의 주관적 편향성을 극복하는 작업을 할 시간을 더 가졌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는 최소한 지혜의 획득을 추구하도록 동기화 되어있는 노인들에게만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혜가 노년기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 삶의 만족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들이 있다. 지혜로운 노인들은 외적 환경이 덜 이상적이라도 삶의 궁극적 의미와 목적이 삶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삶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고 있다(Ardelt, 2000; Kramer, 2000; Sternberg, 1990). 지혜로운 사람들은 현실의 부정적 측면 뿐만 아니라 긍정적 측면도 수용할 수 있다. 그들은 단지 긍정적 측면 때문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을 수용할 수 있고 자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다(Blanchard-Field &

Norris, 1995). 결과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나이듦에 따른 손실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조차 평온함을 유지하고 직면할 수 있다(Ardelt, 1997, 2000; Kramer, 2000). 또한 지혜는 삶의 불확실성과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상실을 다루는 것을 돕는다(Ardelt, 1997, 2000, 2004; Erikson, 1963, 1986; Kramer, 2000). Clayton(1982)은 지혜와 노년기 삶의 만족에 대한 연구에서 지혜로운 노인들은 상실이나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꺼리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지혜의 정서적 요인과 긍정적 성격 변화는 지혜가 한 차원 높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Csikszentmihalyi & Rathunde, 1990; Kramer, 1990; Pascual-Leon, 1990). Ardelt(1997)는 노인의 지혜는 객관적 환경보다 삶의 만족을 예언하는데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지혜는 노인들이 접하게 되는 신체적 건강, 사회경제적 위치, 재정상황, 물리적 환경, 사회적 관계의 정도와 같은 객관적 조건들보다 노년기 삶의 만족에 더 강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노인들은 삶의 변화를 더 잘 다루기 때문에 그들이 접하게 되는 객관적 환경과 상관없이 삶에 만족할 수 있다(Ardelt, 1997).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

그동안 다양한 관점에서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있었다. 성공적 노화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적 접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고전적 사회학이론으로 유리이론(disengagement theory)이 있다. 유리이론은 최적의 개인적, 사회적 환경에서 조차, 나이듦에 따라 활동을 줄이는 것이 정상적이고 필수불

가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사람들은 늙으면서 사회적 구조에 덜 참여하고 상호작용을 감소시키고 더 적은 사회적 역할을 바란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서는 노년기에 이르러 적극적 삶으로부터 철수하고, 그 과정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한다. 유리이론에서는 노년기를 예상되는 생물학적 신체적 감퇴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본다.

둘째, 삶에 대한 대처와 통제측면의 이론들이 있는데, Baltes(1993, 1997)의 선택, 최적화, 보상이론(SOC이론)은 선택, 최적화, 보상 전략(SOC전략)을 통한 삶에 대한 통제유지를 성공적 노화로 개념화하였다. 선택 전략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활동의 선택 과정을 일컫는다. 최적화 전략은 학습, 연습, 경험에 대한 기능적 효능감을 증가시키는 과정을 일컫는다. 보상 전략은 노화과정과 연관된 기능적 능력의 한계와 상실을 완화시키려는 의식적 노력을 나타낸다. Baltes(1997)는 노화에서 SOC전략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사례를 제공하였다. 피아니스트 80세에 이른 Arthur Rubinstein이 콘서트를 준비할 때, 어떻게 높은 수준의 전문적 피아노 연주 수준을 유지하는지 물어보았는데, 이에 대해 그는 “더 적은 곡을 연주하고(선택), 이 곡들을 매우 자주 연습하고(최적화), 기능적 속도상실에 대응하기 위해 후반부의 더 빠른 부분에 대비하여 앞의 부분을 더 천천히 연주한다(보상)”고 대답하였다(Baltes 1997, pp. 371).

SOC전략은 특히 자원이 한정되었을 때 효과적이며(Jopp & Smith, 2006), 이는 적응적 발달 지표에서 희소자원의 부정적 효과를 완충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Riediger, Li, & Lindenberger, 2006). Freund와 Baltes(1998)의 연구에서는 선택, 최적화, 보상 전략의 유용성

이 성공적 노화의 주관적 지표로써 주관적 안녕감, 긍정적 정서, 적은 고독감을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SOC이론은 다양한 방법을 적용한 많은 연구들에서 지지되고 있다(안지연 등, 1998; Chou & Chi, 2002; Lang, Rieckmann, & Baltes, 2002).

Schulz와 Heckhausen(1996)의 전생애 통제이론에서는 인생의 목적은 삶에 대한 기본적 통제를 성취하는 것이라고 본다. 즉, 성공적 노화는 삶을 통한 기본적 통제의 발달과 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성공적 노화의 기준으로 생존과 신체적 기능을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보았다. 이에 비해 일반적인 인지적, 지적, 사회적 관계 기술은 성공적 노화의 이차적 기준들에 해당한다. 특정 영역에서의 능력이나 수행은 삼차적 기준을 대표한다. 이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세 가지 기준을 통합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은 최적의 삶의 과정을 대표하는 것이다. 성공적 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삶에 대한 기본적 통제 노력과 보상적인 이차통제가 중요하며, 노년기의 부정적 삶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통제전략은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다(Lang & Heckhausen, 2001).

셋째, 적극적 활동과 참여를 중시하는 접근이다.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은 성공적 노화의 열쇠는 신체적, 정신적 적극성을 유지하려는 개인적 동기에 놓여있다고 본다. 높은 수준의 적응과 사기를 유지하고, 젊고 적극적으로 사는 것 이상으로 노인에게 유용한 행동패턴은 없다는 것이다(Fry, 1992). Rowe와 Kahn(1987, 1998)은 7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망의 특징, 심리적 특징, 신체적·인지적 기능, 생산적 활동 등의 5가지 영역을 측정하여 이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성공적 노화를 위한 세 가지 요소로 질병과 장애의 부재, 신체적·인지적 기능 유지, 적극적 삶의 참여를 제시하였다. 질병과 장애가 없으면 신체적·인지적 기능을 유지하게 되고, 더 나아가 적극적 인생참여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Rowe와 Kahn(1987, 1998)의 이론은 성공적 노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국내에서도 이 이론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성혜영과 조희선(2005)은 Rowe와 Kahn(1998)의 구성요소를 활용하여 한국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의 핵심은 건강상태와 사회관계망의 특징이 신체적·인지적 기능, 심리적 특징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생산적 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성혜영과 유정현(2002)은 Q방법론을 사용하여 26명의 은퇴자를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하였는데, Rowe와 Kahn(1998)의 주장대로 경제력, 가족관계, 질병예방 요인 등이 성공적 노화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혜의 심리적 측면들을 강조한 접근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Ryff(1989)는 성공적 노화를 단일요소인 주관적 안녕감으로 측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6가지의 심리적 안녕감 요소(자기수용,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자율성, 환경의 지배,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들을 골고루 잘 이루는 것이 성공적 노화라고 보았다. Ford 등(2000)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자식, 기관의 지원을 받기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성공적 노화의 주요 측면이라고 주장하였다. Fisher와 Specht(1999)는 60-93세 노인 36명을 면접하여 성공적 노화의 의미와 노년기의 창의적 활동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목적의식, 타인과의 상호작용, 개인적 성장, 자기수용, 자율성, 건강

이 성공적 노화의 6대 특징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년기의 창의적 활동은 유능감, 목적의식, 성장의식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삶에 대한 객관적 조건을 중시한 접근들이 있다. Chou와 Chi(2002)는 성공적 노화 차원을 기능적 상태, 정서적 상태, 인지적 상태, 생산적 참여 상태로 분류하여 60세 이상 노인 1,106명을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와 관련변인을 조사한 결과, 연령, 성, 교육수준, 가까운 친척의 수, 친구와의 접촉빈도, 재정적 고통, 만성적 질병의 수, 건강에 대한 자기평가, 청력손실, 인생만족도 등이 성공적 노화의 관련 요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Cronsnoe과 Elder(2002)의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노년기 적응을 파악하기 위하여 삶의 만족, 활력, 가족 참여, 직업성공, 시민역할 참여의 형태에 따라 개인의 삶의 분석하였는데, 현재의 건강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성공적 노화를 가장 잘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선행연구

홍현방(2001)은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 정의를 위한 다차원적 구성차원을 제안하였다. 그에 따르면, 성공적인 노화란 과거와 현재를 수용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며, 삶의 의미나 목적감을 잃지 않고 정신적으로 성숙해 가는 심리적인 발달과정이며, 동시에 정신이나 신체상의 질병이 없는 건강기능을 유지하면서,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다. 그는 성공적인 노화의 구성차원을 심리적 측면, 사회관계, 신체건강, 정신건강으로 구분하였는데, 심리적 측면에는 자아개념, 통제소재, 자아통

합(지혜), 사회관계에는 사회적 접촉과 가족과의 접촉, 신체건강에는 질병유무와 기능정도, 정신건강에는 질병유무와 기능정도가 하위요인으로 포함되었다.

그밖에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성공적 노화에 대한 조사연구들이다. 각 연구자들은 조사 연구를 통해 성공적 노화의 개념,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강인(2003)은 노년, 중년, 청년 여성 1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신체적 건강, 개인성장, 정서적 안녕, 자율성, 가족지향, 경제적 안정 등이 성공적 노화와 관련됨을 밝혔다. 박경란과 이연숙(2002)은 대학생,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자율, 개인성장, 안락한 생활, 역할완수, 상호교류, 봉사 등을 성공적 노화의 주요 측면으로 제시하였다. 김미혜, 신경림, 강미선, 강인(2004)은 4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의 속성을 9가지 복(福), 즉 부부복, 자식복, 친구복, 여가생활복, 거처복, 재산복, 건강복, 마음복, 죽음복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노욕을 버리고 지난 삶을 소중히 여기며 긍정적으로 과거와 현재를 수용함으로써 마음을 편히 다스리는 마음복과 죽음을 준비하고 초연하게 임종을 맞이하는 죽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주일, 정지원과 이정미(2006)는 한국과 미국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행복감에 대해 연구한 결과, 행복한 노년을 결정하는데 있어 사회적 지지망의 구축과 심리적 욕구 충족이 가지는 의미를 성공적 노화를 설명하는 토대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서경현(2006)은 노년기의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해 활동과 사회적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지목하였다.

국내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 동향을 정리하자면, 신체적 기능과 건강 측면, 자기수용, 자율, 자기통제, 개인성장, 목적의식 등과 같은 심리적 측면,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를 포함한 친밀관계 측면, 사회적 관계 및 생산적 활동 측면, 경제적 준비 및 복지 측면 등의 다양한 측면들이 성공적 노화의 주요 구성 요소들인 것으로 보인다(김미혜, 신경림, 2005; 성혜영, 유정현, 2002).

성공적 노화의 통합적 개념화

통합적 개념화의 필요성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성공적 노화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접근들에서는 각기 활동측면, 삶의 통제 측면, 심리적 측면, 객관적 삶의 조건 측면 등을 저마다 달리 강조하고 있다. 이는 성공적 노화가 갖는 의미의 다양성이 크고 넓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다양한 성공적 노화 이론들은 나이듦의 상실측면과 발달측면 둘 다를 포괄하여 통합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유리이론은 노화의 감퇴를 부정하지 않고 수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노년기의 발달측면을 무시하고 있다. 활동이론은 유리이론과 반대로 노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중시하지만, 이 이론의 주된 문제는 나이와 성공적인 참여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다. 이 이론이 주장하는 바는 은퇴 등으로 어떤 활동이 위협될 때 가능한 한 즉각적으로 대체활동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Fry, 1992). 이는 활동참여만을 성공적 노화로 본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Rowe와 Kahn(1998)의 이론은 의료,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을 넓혔다는 데 큰 의의를 지니지만, 그들의 연구는 “super elder”를 연상케 하고(성혜영, 유정현, 2002), 노년기의 상실 측면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노화의 부정적 측면을 외면하려는 인상이 강하다(강인, 2003). Motta, Bennati, Ferlito, Malaguarnera, 및 Motta(2005)의 연구에서는 100세 이상의 고령노인을 대상으로 Rowe와 Kahn(1998)의 성공적 노화 모형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이들의 성공적 노화 기준에 맞는 사람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미화가 존재하고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삶에 대한 통제를 중시하는 Baltes(1993)의 SOC이론, Heckhausen과 Schulz(1996)의 전생애 통제이론은 발달적 입장에서 노화에 따른 상실에 대한 대처전략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려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Baltes(1993)의 이론은 인간의 노화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개인적 자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심리적 측면만 강조한다는 비판(예: 성혜영, 유정현, 2002; Freund & Reiding, 2003)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이 이론은 변화에 대한 개인의 통제전략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깊이 있는 관점이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 모델은 노인들이 경험하는 주관적 안녕감의 다양한 기준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심리학적 개념과 차원의 제시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제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노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다(강인, 2003; Freund & Reiding, 2003).

객관적 삶의 기준을 성공적 노화의 주요 측면들로 강조한 연구들과 관련하여, 객관적 기준은 복지측면에서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인으로 중요하지만, 삶의 객관적 조건들에만 초점을 맞춰 성공적 노화를 개념화 한다면, 객관적 조건을 갖추는 것만이 성공적 노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여기게 되는 한계를 갖게 된다. 만성적 질병을 앓고 있는 많은 노인들이 자신을 성공적으로 노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 조건이 좋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성공적으로 노화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한 연구 결과들(예: Strawbridge 등, 2002)은 객관적 조건보다 심리적 측면이 성공적 노화에 더 중요한 요인일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기존의 성공적 노화에 개념적 논의는 주로 서양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우리문화와 같은 동양적 관점의 성공적 노화의 개념적 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앞서 국내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조사연구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에는 활동이나 자기 통제의 강조보다는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경제적 측면 등이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 있었다. 국내에서 홍현방(2001)은 다차원적 성공적 노화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성공적 노화는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는 동시에 자아통합(지혜)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성공적 노화의 하위 구성요인인 심리적 측면과 정신 건강과의 구분이 애매하고, 자아통합으로서의 지혜를 언급한 이외에 지혜에 대한 개념화가 제시되지 않는 등, 심리적 측면의 구성요인들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또한 성공적 노화를 모델에서 제시된 모든 구성요소들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볼 때, 앞서 언급했던 다른 이론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성공적 노화를 이상주의적 관점에서만 조망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나이듦은 감퇴뿐만 아니라 성장과 발달의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성공적 노화의 개념에 성장과 발달 측면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공적 노화를 설명하는 각 이론적 접근들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이론들은 나이듦에 따른 감퇴에 대한 대처와 현실적응에 초점을 두는 대신, 성장과 발달측면은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심리적 측면에서 자기성장 등의 요인들이 언급되고 있으나 이는 대체로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로만 사용되고 있고, 무엇이 어떻게 성장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

지혜는 인간발달과정에서 가장 최고의 경지

에 해당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지혜에 대한 개념화를 통해 지혜가 성공적 노화의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혜는 인지적, 반성적, 정서적 측면들을 아우르는 다차원적인 구성개념이다(Ardelt, 1997; Clayton & Birren, 1980). 사실, 이러한 지혜는 개인적인 삶의 만족과 노년기 안녕감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좀 더 포괄적인 의의를 지닌다. 즉, 지혜는 타인과 사회에 대한 공동선을 추구한다. 따라서 발달적 의미에서 지혜의 추구는 성공적 노화의 가장 높은 절정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적 개념화의 내용과 특징

성공적 노화의 통합적 개념화의 구성요인은

표 1.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인

구분	영역	하위요인	시사점
생활적 측면	신체,정신적 기능	신체 및 정신적 건강	나이듦에 따른 감퇴에 대한 예방적 노력 및 사회적 인프라 구축
	객관적 생활 조건	경제적 수준, 주거환경	
	사회적 관계	가족관계, 사회관계의 양과 질	
	참여 활동	참여 활동의 양과 질	
심리적 측면	개인적 평가	신체기능, 객관적 삶의 조건, 사회적 관계, 활동참여 등 자신에 대한 평가	상실, 감퇴에 대한 평가와 대처 전략 사용
	삶에 대한 통제전략	삶의 부정적 변화에 대한 대처전략 사용	
	정서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 삶의 질 만족도 등	
발달적 측면	지혜	인지적 요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현상과 사건의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 것 반성적 요인: 현상에 대한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것으로 단지 사건에 반응하기보다 다른 관점들로써 현상과 사건을 보는 것 정서적 요인: 자신과 타인에 대한 수용, 공감, 동정적이 되어 타인을 돕는 것	지혜를 통한 타인과 사회의 공익에 기여

표 1과 같다.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인을 생활적 측면, 심리적 측면, 발달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생활적 측면에는 신체적 기능, 객관적 생활 조건, 사회적 관계, 참여 활동 등이 포함된다. 이 하위요인들은 생활적 측면에서 나이듦에 따라 부정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요인들이다. 즉, 나이듦에 따라 신체기능이 떨어지고, 경제적 수입이 감소하고,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참여 활동이 줄어들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성공적 노화의 기준은 나이듦에 따른 변화가 얼마나 덜 부정적인가라고 할 수 있다. 즉,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 수준이 괜찮고, 사회적 관계가 있으며, 참여하는 활동이 있다는 것이 성공적 노화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심리적 측면은 생활적 측면만으로 성공적 노화를 판단할 수 없는 심리적인 부분을 일컫는다. 여기에는 개인적 평가와 통제전략의 사용, 정서적 안녕감 등이 포함된다. 자신이 성공적 노화과정에 있는지에 대한 평가 혹은 지각은 동일한 객관적 조건에 있는 사람이라도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즉, 열악한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아주 좋은 환경에서도 불행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삶에 대한 통제전략은 상실에 대처하는 전략 사용과 관련된다. 또한 정서적 안녕감은 현재의 행복감, 만족도를 나타낸다. 세 번째, 발달적 측면에서는 나이듦에 따라 성장, 발달할 수 있는 지혜를 성공적 노화의 기준으로 삼았다. 여기에서 지혜는 인지적 요인, 반성적 요인, 정서적 요인의 다차원적 개념으로 정의되었다.

성공적 노화의 통합적 개념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나이듦에 따른 감퇴 측면과 발달하는 측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

나이듦은 부정적 변화와 긍정적 변화를 다 포함하지만, 기존의 성공적 노화 이론들은 나이듦에 따른 부정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발달적 의미에서 본다면 나이듦에 따라 성장하고 발달하는 요인들을 성공적 노화의 기준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즉, 지혜를 인지적, 반성적, 정서적 등으로 다차원적 개념으로 정의해 볼 때, 나이듦에 따라 삶의 경험에 대한 통찰, 성찰, 정서적으로 깊이 있는 이해가 발달한다. 성공적 노화의 통합적 개념화는 나이듦에 따른 감퇴와 상실을 완충하고 보상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자신과 사회에 더 공헌할 수 있는 측면에서 지혜를 포함시킨 것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둘째, 성공적 노화 개념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체계화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성공적 노화의 일부 측면들만을 제한적으로 다루어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는 다측면, 다영역, 다요소적 성질을 지닌다는 전제하에, 우선 성공적 노화를 기본적 생활측면, 심리적 측면, 발달적 측면으로 구분한 다음, 각 측면들마다 관련 영역과 하위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 제시하려 하였다. 여기에서 각 측면과 영역은 서로 연관되지만 독립적이다. 생활측면은 나이듦에 따라 부정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생활상의 영역이다. 신체적 기능, 경제적 조건, 사회적 관계, 참여 활동 등은 나이듦에 따라 생활 속에서 감퇴할 수 있다. 심리적 측면은 생활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감퇴가 있더라도 이러한 감퇴를 조절, 중재, 매개할 수 있는 심리적 특성 혹은 상태들을 포함한다. 발달적 측면은 나이듦에 따른 인지적, 반성적, 정서적 측면에서 지혜의 발달과 성장을 나타낸다.

성공적 노화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측면들이

중요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 모든 측면들에서 다 성공해야만 성공적 노화가 가능하다는 이상주의적이고도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유형의 성공적 노화를 해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즉, 생활적 측면에서 성공적 노화를 하는 사람들, 생활적 측면에서 안 좋더라도 심리적 측면에서 성공적 노화를 하는 사람들, 발달적 측면에서 성공적 노화를 하는 사람들 등 다양한 성공적 노화의 유형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 통합적 개념화는 다양한 성공적 노화 유형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위한 유용한 개념적 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활동, 자기통제 등 한, 두 가지 측면들을 강조하는 서양적 성공적 노화 개념에 비해, 생활, 심리, 발달의 다양한 측면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본 연구의 개념화는 동양적 문화에 더 적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조사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나라 노인들이 다양한 측면의 성공적 노화 기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만족을 넘어서서 가족, 사회 등 보다 넓은 영역에서 기여를 하고자 하는 소망을 엿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모형은 이러한 다양한 성공적 노화의 기준들을 설명할 수 있다.

개입을 위한 시사점

지금까지 성공적 노화에 대한 통합적 개념화의 필요성과 통합적 개념화의 구성요인과 주요 특징들에 관해 살펴보았다. 다음 부분에서는 성공적 노화의 통합적 개념화가 성공적 노화를 위해 어떤 시사점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통합적 개념화에서는 성공적 노화를 생활, 심리, 발달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각 측면마다 성공적 노화를 촉진하기 위한 개입을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생활적 측면에서는 나이듦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부정적 변화들에 대해 미리 대비함으로써 성공적 노화를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건강관리, 노후준비, 활동참여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개인의 준비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개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노인대상의 일자리 창출, 활동영역의 개척, 복지지원, 의료지원 등이 성공적 노화를 위해 사회가 해야 할 노력들일 것이다.

둘째, 심리적 측면에서는 자신과 자신의 객관적 환경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어쩔 수 없는 상실과 감퇴에 대한 건강한 평가와 통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는, 비록 상실과 자원의 한정 때문에 객관적인 삶의 조건이 열악해 진다고 하더라도, 평가와 대응전략이 이에 대처하고 삶의 만족감을 얻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상실에 대한 대처전략을 가르치고 안내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나이듦에 따른 부정적 변화와 자신에 대한 평가도 삶의 만족감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어떤 평가 도식으로 자신을 평가하느냐는 노후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의욕을 갖느냐, 우울하게 보내느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교육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노인들의 평가도식과 대처전략을 분석하고 적응적 측면의 개입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이 심리적인 서비스, 교육 부문에서 중요하게 수행해야 할 역할이며, 이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등도 필요하다.

셋째, 발달적 측면에서는 성공적 노화를 위해 부정적 측면에 대한 대처뿐만 아니라 나이에 따라 지혜가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혜로운 노인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이 될 것이다. 즉, 사회적 공익을 위해 지혜를 발달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된다. 많은 지혜관련 연구들은 지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성공적 노화를 위한 프로그램에는 노년기에 대처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를 촉진시키는 것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노년기에는 삶의 회고와 과거를 검토하고 현재의 자신과 통합하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삶의 회고는 자신의 대한 사고의 관점과 폭을 넓혀주며 지혜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은 노인들에게 자아통합과 지혜를 얻고 노년기 삶에 만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이가옥, 이현송, 2004). 지혜에 대한 발달과 촉진은 노년기에 이르러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지혜의 발달은 유아교육에서부터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반성적 사고는 유치원에서부터 역할극 게임으로 가르쳐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고 그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다(Ardelt, 2000).

상담전문가들은 사람들에게 삶의 과정에서 지혜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Johnson, 1995). 노안영(노안영, 1998; No, 1993)은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상담자의 특성으로 지혜를 꼽았다. 상담자의

지혜발달은 자신의 성공적 노화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학자와 인적 서비스 관련 전문가들은 나이듦에 따른 감퇴에 대한 수동적 대처에만 초점을 두는 것에서 나아가, 지혜측면을 포함하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통합적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는 앞으로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진 노인계층의 노인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기능성 향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참고문헌

- 강인 (2003). 성공적 노화의 지각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0, 95-116.
- 김명자 (2003). 퇴직한 남편과 그 부인의 탄력성과 적응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6), 117-127.
- 김명자, 박미금, 송말희 (2005). 남성퇴직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2), 143-158.
- 김문영, 정현희 (2004). 인지행동적 집단상담과 지지적 집단상담이 노인의 우울과 고독감에 미치는 효과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367-382.
- 김미혜, 신경림, 강미선, 강인 (2004).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에 대한 경험. 한국노년학, 24(2), 79-95.
- 김미혜, 신경림, 최혜경, 강미선 (2005).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 삶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6(1), 91-104.
- 김미혜, 신경림 (2005).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 2, 35-52.

- 김애순 (2004). 성인발달과 생애설계. 시그마프레스 211-227
- 김태현 (1994). 노년학. 교문사.
- 김형수 (2000). 노인과 자살. 노인복지연구, 10, 25-45.
- 김후경, 이순철, 오주석 (2007). 고령자의 상실감과 자아통합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2), 17-32.
- 노안영 (1998). 한국과 미국의 상담심리학자들이 지각하는 지혜의 비교. 대학상담연구, 9(2), 217-243.
- 박경란, 이영숙 (2002).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22(3), 53-66.
- 박민, 진영선 (2002). 청년과 노인의 암묵기억 과제 수행에서의 연령차.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4), 19-36.
- 서경현 (2006). 고령화 사회에서 한국인의 건강과 삶의 질.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5), 133-147.
- 서경현, 김영숙 (2003). 독거노인의 자아존장감과 우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1), 115-137.
- 성혜영, 유정현 (2002). 성공적 노화개념의 인식에 관한 연구-Q방법론적 접근. 한국노년학, 22(2), 75-93.
- 성혜영, 조희선 (2005). Row와 Kahn의 구성요소를 활용한 성공적 노화모델. 한국노년학, 26(1), 105-123.
- 안지연, 김애순, 한광희 (1998). 성공적 노화를 위한 선택, 적정화, 보상책량과 대처행동양식 및 삶의 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323-341.
- 유경, 민경환 (2005a). 연령 증가에 따른 정서 최적화 특성의 변화: 정서 경험과 사회적 목표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5(2), 211-227
- 유경, 민경환 (2005b). 연령 증가에 따른 정서 복잡성의 변화가 장노년기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5(4), 189-203,
- 윤진 (1985). 성인·노인 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 윤훈, 이순철, 오주석 (2007). 고령자의 상실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2), 1-15.
- 이가옥, 이현송 (2004). 노년기 자아통합 집단 프로그램 개발: “나의 살아온 이야기”. 한국노년학, 24(1), 37-52.
- 이선미 (2005). 노년기 부부의 외로움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1), 37-54.
- 이신숙, 이경주 (2002). 노인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2(1), 1-20.
- 이장호, 김영경 (2006) 노인상담. 시그마프레스.
- 이주일, 정지원, 이정미 (2006). 미국거주 한인노인과 국내노인 간 행복감의 차이 및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5), 169-203.
- 이호선 (2006). 노인상담. 학지사.
- 정옥분 (2004). 전생애발달의 이론. 학지사.
- 정태연, 조은영 (2005). 노년기의 외로움 및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변인탐색. 한국노년학. 25(1), 55-71.
- 조성원 (1996). 청년과 노인의 기억과정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9(1), 183-197.
- 최혜경, 백지은, 서선영 (2005). 노인들의 인식을 통한 한국적인 성공적 노화의 개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10.
- 통계청 (2006) 2006 고령자통계. 통계청

- 홍현방 (2001). 성공적인 노화 개념정의를 위한 문헌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행정자치부 (2006,10,11). 주민등록 전산자료 통계로 보는 지역별 인구구성 변동추세.
- Ardelt, M. (1997). Wisdom and life satisfaction in old ag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2(1), 15-27.
- Ardelt, M. (2000). Antecedents and effects of wisdom in old age: A longitudinal perspective on aging well. *Research on Aging*, 22(4), 360-336.
- Ardelt, M. (2004). Wisdom as expert knowledge system: A critical review of a contemporary operationalization of an Ancient concept. *Human development*, 47, 257-285.
- Baltes, P. B. (1987). Theoretical propositions of life-span development psychology: On the dynamics between growth and decline. *Developmental Psychology*, 23, 611-626.
- Baltes, P. B. (1993). The aging mind: Potential and limits, *The Gerontologist*, 33, 580-594.
- Baltes, P. B. (1997). On the incomplete architecture of human ontogeny: Selection, optimization, and compensation as foundation of developmental theory. *American Psychologist*, 52(4), 366-380.
- Baltes, P. B. & Smith, J. (1990). Towards a psychology of wisdom and its ontogenesis. In R. J. Sternberg (Ed.). *Wisdom: Its nature, origins, and development* (pp.87-12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ltes, P. B. & Staudinger, U. M. (2000). Wisdom: A metaheuristic (Pragmatic) to orchestrate mind and virtue toward excellence. *American Psychologist*, 55(1), 122-136.
- Baltes, P. B., Staudinger, U. M., & Lindenberger, U. (1999). Lifespan psychology: Theory and application to intellectual function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0, 471-507.
- Belsky, J. (1999). *The psychology of aging: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s*. Brooks/Cole Pub. Co.
- Blanchard-Fields, F. (1986). Reasoning on social dilemmas varying in emotional saliency: An adult developmental perspective. *Psychology and Aging*, 1(4), 325-333.
- Brandstdter, J. & Greve, W. (1994). The aging self: Stabilizing and protective processes. *Developmental Review*, 14, 52-80.
- Brugman, G. M. (2006). Wisdom and aging. In Birren, J. E. & Schaie, K. W.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ging vol6* (pp 445-476). Elsevier Inc.
- Carstensen, L. L. (1992). Social and emotional patterns in adulthood: Support for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Psychology and Aging*, 7(3), 331-338.
- Carstensen, L. L., Fung, H. H., & Charles, S. T. (2003).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and the regulation of emotion in the second half of life. *Motivation and Emotion*, 27(2), 103-123.
- Carstensen, L. L., Isaacowitz, D. M., & Charles, S. T. (1999). Taking time seriously: A theory of socioemotional selectivity. *American Psychologist*, 54(3), 165-181.
- Carstensen, L. L., Pasupathi, M., Mayr, U., & Nesselroade, J. R. (2000). Emotional

- experience in everyday life across the adult life s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4), 644-655.
- Caspi, A. & Roberts. B. W. (2001). Personality development across the life: The argument for change and continuity. *Psychological Inquiry*, 12, 49-66.
- Charles, S. T., Reynolds, C. A., & Gatz, M. (2001). Age-related differences and change in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over 23 yea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1), 136-151.
- Chou, K. L. & Chi, I. (2002) Successful aging among the young-old, old-old, and oldest-old chinese. *International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4(1), 1-14.
- Clayton, V. (1982). Wisdom and intelligence: The nature and function of knowledge in the later year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Development*. 15, 315-23.
- Clayton, V., & Birren, J. E. (1980). The development of wisdom across the lifespan: A reexamination of an ancient topic. In P. B. Baltes & O. G. Brim (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vol3* (pp103-135). New York
- Crosnoe, R., & Elder, G. H. (2002). Successful adaptation in the later years: A life course approach to aging.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5(4), 309-328.
- Csikszentmihalyi, M., & Rathunde, K. (1990). The psychology of wisdom: An evolutionary interpretation. In R. J. Sternberg (Ed.), *Wisdom: Its nature, origins, and development* (pp.25-5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iehl, M., Coyle, N., & Labouvie-Vief, G. (1996). Age and sex differences in strategies of coping and defense across the life span. *Psychology and Aging*. 11(1), 127-139.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Erikson, E. H. (1982). *The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Norton.
- Erikson, E. H., Erickson, J. M., & Kivnick. H. Q. (1986). *Vital involvement in old age: The experience of old age in our time*. New York: Norton.
- Fisher, B. J., & Specht, D. K. (1999). Successful aging and creativity in later life. *Journal of Aging Studies*, 13(4), 457-472.
- Ford, A. B., Haug, M. R., Stange, K. C., Gaines, A. D., Noelker, L. S., & Jones, P. K. (2000). Sustained personal autonomy: A measure of successful aging. *Journal of aging and health*, 12(4), 470-489.
- Freund, A. M., & Baltes, P. B. (1998). Selection, optimization, and compensation as strategies of life-management: Correlations with subjective indicators of successful aging. *Psychology and Aging*, 13, 531-543..
- Freund, A. M., & Riediger. M. (2003). Successful aging. In Weiner. I. B.(Ed.) *Handbook of psychology vol6* (pp 601-628). Jone Wiley & sons, Inc.
- Fry. P. S. (1992). Major social theories of aging and their implications for counseling concepts and practice: A critical review.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0(2), 246-329.
- Heckhausen, J. (1997). Developmental regulation

- across adulthood: Primary and secondary control of age-related challenges. *Developmental Psychology*, 33(1), 176-187.
- Heckhausen, J., Dixon, R. A., & Baltes, P. B. (1989). Gains and losses in development throughout adulthood as perceived by different adult age groups. *Development Psychology*, 25, 109-121.
- Helson, R., Jones, C. J., & Kwan, V. S. Y. (2002). Personality change over 40 years of adulthood: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analyses of two longitudinal sam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3), 752-766.
- Helson, R., Kwan, V. S. Y., John, O. P., & Johnes, C. J. (2002). The growing evidence for personality change in adulthood: Findings from research with personality inventori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6, 287-306.
- Hill, R. D., Thorn, B. L., & Packard, T. (2000). Counseling older adults: Theoretical and empirical issues in prevention and intervention. In Brown, S. D. & Lent, R. W.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vol3* (pp 499-531). John Wiley & Sons.
- Holliday, S. G., & Chandler, M. J. (1986). *Wisdom: Explorations in adult competence*. Basel: Karger.
- Jopp, D., & Smith, J. (2006). Resources and life-management strategies as determinants of successful aging: On the protective effect of selection, optimization, and compensation. *Psychology and Aging*, 21(2), 253-265.
- Kekes, J. (1983). Wisdom.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20, 277-286.
- Kramer, D. A. (1990). Conceptualizing wisdom: The primacy of affect-cognition relation. In R. J. Sternberg. *Wisdom: its Nature, Origins, and Development* (pp.279-31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bouvie-Vief, G. (1990). Wisdom as integrated thought: Historical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s. In Sternberg, R. J. *Wisdom: Its Nature, Origins, and Development* pp.52-8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bouvie-Vief, G. (2003). Dynamic integration: Affect, cognition, and the self in adulthood.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2(6), 201-206.
- Labouvie-Vief, G., Chiodo, L. M., Goguen, L. A., Diehl, M., & Orwoll, L. (1995). Representations of self across the life span. *Psychology and Aging*, 10(3), 404-415.
- Labouvie-Vief, G., Diehl, M., Tarnowski, A., & Shen, J. (2000). Age differences in adult personality: Findings from the united states and china. *Journal of Gerontology*, 55B(1), 4-17.
- Labouvie-Vief, G., Hakim-Larson, J., & Hobart, C. J. (1987). Age, ego level, and the life span development of coping and defense processes. *Psychology and Aging*, 2(3), 286-293.
- Labouvie-Vief, G., & Medler, M. (2002). Affect optimization and affect complexity: Modes and styles of regulation in adulthood. *Psychology and Aging*, 17(4), 571-588.
- Lang, F. R., & Carstensen, L. L. (1994). Close emotional relationships in late life: Further

- support for proactive aging in the social domain. *Psychology and aging*, 2, 315-324.
- Lang, F. R., & Heckhausen, J. (2001). Perceived control over develop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Differential benefits across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3), 509-523.
- Lang, F. R., Rieckmann, N. & Baltes, M. M. (2002). Adapting to aging losses: Do resources facilitate strategies of selection, compensation, and optimization in everyday functioning? *The Journals of Gerontology*, 57B(6), 501
- Lawton, M. P., Kleban, M. H., Rajagopal, D., & Dean, J. (1992). The demensions of affective experience in three age groups. *Psychology and Aging*, 7, 171-184
- Levitt, H. M. (1999). The development of wisdom: An analysis of Tibetan Buddhist experience.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39(2), 86-105.
- Lindenberger, U., & Baltes, P. B. (1997). Intellectual functioning in old and very old age : Cross-sectional results from the berlin aging study. *Psychology and Aging*, 12(3), 410-432.
- McKee, P., & Clifton, B. (1999). On defining wisdom.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9(2), 149-164.
- Motta, M. Bennati, E., Ferlito, L., Malaguarnera, Motta, L. (2005). Successful aging in centenarians: Myths and reality.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40, 241-251
- Mroczek, D. K., & Kolarz, C. M. (1998). The effect of age on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happ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5), 1333-1349.
- No. Ann-Young. (1993). Wisdom as defined and perceived by counseling psychologists. University of Kentuck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Orwoll, L., & Perlmutter, M. (1990). The study of wise persons: Integrating a personality perspective. In Sternberg. R. J. *Wisdom: Its nature, origins, and development*. (pp160-17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scual-Leon, J. (1990). An essay on wisdom: Toward organismic processes that make it possible. In Sternberg. R. J. *Wisdom: Its nature, origins, and development* (pp244-27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ediger, M., Li, S., & Lindenberger, U. (2006). Selection, optimization, and compensation as developmental Mechanism of adaptive resource allocation: Review and preview. In Birren. J. E. & Schaie. K. W.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ging vol6* (pp289-313). Elsevier Inc.
- Riley, M. W. (1998). Letters to the editor. *Gerontologist*, 38, 151.
- Robert, B. W., Helson, R., & Klohnen, E. C. (2002). Personality development and growth in women across 30 years: Three perspectives. *Journal of personality*, 70(1), 79-102.
- Rowe, J. W., & Kahn, R. L. (1987). Human aging: Usual and successful. *Science*, 237, 143-149.
- Rowe, J. W., & Kahn, R. L. (1998). *Successful*

- aging. New York: Pantheon Books.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Schaie, K. W. (1996). Intellectual development in adulthood. In J. E. Birren & K. W. Schaie(Eds.),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ging vol4* (pp266-286).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Schulz, R., & Heckhausen, J. (1996). A life span model of successful aging. *American Psychologist*, 51(7), 702-714.
- Staudinger, U. M. (1999). Older and wiser? Integrating resul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wisdom-related perform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3(3), 641-664.
- Staudinger, U. M., & Baltes, P. B. (1996). Interactive minds: A facilitative setting for wisdom related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746-762.
- Staudinger, U. M., Maciel A. G., Smith, J., & Baltes, P. B. (1998). What predicts wisdom-related performance? A first Look at personality, intelligence, and facilitative experiential context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2, 1-17.
- Sternberg, R. J. (1990). *Wisdom: Its Nature, Origins, and Develop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ernberg, R. J. (1998). A Balance Theory of Wisdom.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4), 347-365.
- Strawbridge, W. J., Wallhagen, M. I., & Cohen, R. D. (2002). Successful aging and well-being: Self-rated compared with Rowe and Kahn. *The Gerontologist*, 42, 727-733.
- Takahashi, M. (2000). Toward a Culturally Inclusive Understanding of Wisdom: Historical Roots in the East and West.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1(3), 217-230.
- Vaillant, G. E. & Mukamal, K. (2001). Successful aging.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 839-848.
- Williamson, G. M. (2002). Outlook for the 21st Century. In Synder, C. R. & Lopez, S. J.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676-686). Oxford University Press.
- Wink, P., & Helson, R. (1997). Practical and transcendent wisdom: Their nature and some longitudinal findings.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4(1), 1-15.

1 차 원고 접수일 : 2007. 4. 30

최종 원고 접수일 : 2007. 7. 4

Aging and Wisdom: An Integrated Conceptualization of Successful Aging

Su-Lim Lee

Seong-Ho Cho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cast a frame for the integrating concept of successful aging together with for understanding both elderly problems and aging, which was one of the major issues in aging society. For this, the author reviewed the meaning of aging and also made a general survey of both affirmative change such as growth and development and negative change with regard to aging. Particularly, it was observed that wisdom is a key factor for successful aging. The existing theory of successful aging and major study results were reviewed. As a result, the author proposed an integrated conceptualization of successful aging under the general discussion of the limits of existing theory and also explained th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an integrated conceptualization of successful aging in line with the discussion on the definition of the integrated concept of successful aging.

Key words : successful aging, wisdom, aging, elderly problem